주지 진산식 '나눔'으로 회향

통도사 현문 스님, 행복드림 사업에 3000만원

"화려하고 권위적인 취임식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 환원이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잘 활용되고 소중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이 주지 진산식에 필요한 일체 비용을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 나눔 활동에 기부했다.<사진> 앞서 방장 성파 스님이 지난해 4월 방장 추대식에 필요한 기금을 희귀병 소아암 환우를 위해 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불지종가다운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성금 전달식은 6월 20일 양산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됐으며, 통도사는 성금 3076만원을 전달했다. 주지 취임식 비용 3000만원과 불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76만원을 더한 것이다. 성금은 현문 스님을 대신해 통도사 총무국장 문성 스님과 사회국장 송정 스님이 전달했다.



성금은 (재)양산시복지재단이 실행하는 '우리동네 행복드림' 사업에 활용된다. 우리동네 행복드림 사업은 저소득 냉난방 지원, 아동 환우 치료비, 밧줄 추락사 노동자 유가족 돕기 등 양산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행복 지원 사업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현문 스님에게 감사드린다. 스님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고 성금을 잘 사용하겠다. 지역사회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중증장애인 삶의 질 향상 최선"

전주 금선백련마을 개원 3주년 기념법회

전주에서 유일하게 불교계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시설인 금선백련마을이 개원 3주년을 맞았다.

사회복지법인 송광(이사장 도영) 산하 금선백련마을(대표 덕산)은 6월 21일 전주 금선암에서 개원 3주년 기념법회 및 사찰음식 시식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도영 스님과 덕산 스님, 최종문 완산경찰서장, 이용규 완산경찰서 발전위원장, 유정희 자연음식문화원 대표, 김영돈 금선암 신도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도영 스님은 "금선백련마을이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금선암 불자들이 후원자가 돼 남다른 원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며 "특히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인들을 가족같이 보살핀 직원들의 노고가 크다"고 치하했다.



덕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개원 3주년을 맞기까지 후원자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됐다"며 "완산경찰서 경불회 등 후원자들의 성원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생활인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소원 청년회, 다문화가정 지원 나서

생필품 등 20여 가구 지원

사단법인 미소원 청년회(회장 박미주)는 6월 22일 부산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랑나눔 미소나눔' 생필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청년회는 200만원 상당의 성금으로 마련한 여성 생리용품 및 생필품을 다문화가정 20여 가구에 지원했다.

박미주 회장은 "지난 미청 맛집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회향한 것이다. 행복한 나눔의 가교 역할을 청년회가 담당했는데 앞으로도 나눔을 위한 심부름꾼으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규모 수계, 佛都 부산 달군다

조계종부산연합회, 7월 6일 삼귀의 · 오계 수계법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암에 걸린 한 부산 원오사 불자가 임종을 앞두고 가장 바란 일은 계를 받는 일이었다. 그는 계를 받은 후 정확히 일주일 뒤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지난해 조계종부산연합회가 주최한 수계법회에 참여한 불자의 이야기다. 부처님 가르침을 죽을 때까지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가 바로 참된 불자다. 올해도 지계를 목숨처럼 여기고 사랑하며 지킬 것을 다짐하는 수계법회가 열린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는 7월 6일 오후 3시 '제2회 삼귀의 · 오계 수계법회' 를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 이벤트홀(5층)에서 개최한다.

삼귀의 · 오계 수계법회는 불자들에게 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계를 받아 불자로서 살아가는 근본을 일깨우기 위해 개최된다. 초심으로 돌아가 계를 실천하는 것이 불교중흥의 시작이자 열쇠란 의미다.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원허 스님은 "부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불도로, 한국불교의 중심이다. 계를 수지하고 강조하는 것은 불제자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계를 받아야 불자로서 의무가 생기고 자격을 갖춘다. 법복을 비로소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계법회는 불자로 살 것을 발원하고 신심을 다지며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계법회는 대종오타로 시작을 알려 〈천수경〉으로 도량결계를 진행한다. 삼귀의례 후 전계사 스님이 입장할 예정이다. 3사는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 갈마아사리 수불 스님(조계종부산연합회 초대 회장), 교수아사리 수진 스님(조계종부산연합회 2대 회장)이며, 존증아사리는 지현 스님(송광사 율주), 경성 스님(해인사 율주), 심산 스님(조계종부산연합회 3대 회장), 정현 스님(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원범 스님(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덕문 스님(통도사 율원장), 만초 스님(전법도량 의장)이다. 인례는 영산 스님(통도사 염불대학원장)이 담당한다.

부산항 여객터미널 컨벤션서
1200명 선착순 모집해 봉행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 나서
직접 불자들에게 계첩 수여



조계종부산연합회는 7월 6일 오후 3시 '제2회 삼귀의 · 오계 수계법회'를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수계법회 모습.

의식은 △개식 △거향찬 △대비주 △청성 △청사 △개도(삼귀오계 설명) △삼귀의 △오계 △관정수 영상 시청 △관정수 전달 △참회 △관정 △수삼귀의 △오계 선계상 및 계백작증 △발원 △회향 △법어 및 인사말 △회향게 △폐식 순으로 진행된다.

수계법회에서 사용할 관정수는 3대 관음성지인 보리암, 보문사, 낙산사에서 조계종부산연합회 스님들이 직접 채수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삼보일배하며 관음성지에 올라 물을 받았다"며 "오직 환희의 법석으로 참가하는 모든 이가 계를 받아 부처님의 불자로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계법회 동참인원은 1200명으로 선착순 접수하며 1인 참가비는 2만원이다. 수계자는 수계첩, 소형매트, 에코백을 받는다. 참가 복장은 흰색 상의에 편한 바지를 입으면 된다. 의식에 앞서 조계종부산연합회 3대 · 4대 회장 이 · 취임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수계를 받아 불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사회적 모범이 되는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수행자인 동시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맑고 밝은 사회에 보탬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051)501-7554

"어르신 생일에 외로움 없기를"

부산 동명불원 신도회 5년째 생신잔치 펼쳐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부산 동명불원 불자들이 어르신을 위한 특별한 생일 파티를 매달 정기적으로 열어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 동명불원(주지 승찬)은 6월 21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을 위한 생일잔치를 개최했다.

생일 축하무대를 위해 용호어린이집 아이들은 생일을 맞은 어르신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머리 위에 앙증맞은 고깔모자를 쓴 어르신들이 함박웃음을 짓자 얼굴엔 주름이 펴졌다. 함께 자리에 참석한 지역 어르신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했고, 선물 증정식도 이어졌다. 동명불원은 떡, 과일, 고기 등 모든 음식을 손수 마련해 복지관 지하 식당에 푸짐한 잔칫상을 마련했다.



동명불원이 6월 21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을 위해 마련한 생일상.

동명불원은 복지관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달 셋째 주 금요일마다 생일잔치를 열고 있다. 동명불원 생일잔치는 5년 전 지역 독거어르신들이 외롭게 생일을 맞지 않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됐으며, 동명불원 신도회 5개팀이 릴레이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용흥종합사회복지관에는 지역 저소득 어르신 180여 명이 매일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달 생일자를 찾아 동명불원은 생일잔치를 제공하고 건강을 기원한다. 이번 달 생일을 맞은 어르신은 총 10명이다.

모든 참석자를 대표해 김한동 어르신은 "매달 생일을 맞는 사람들을 위해 생일상도 푸짐하게 차려주고 축하해줘 너무나 감사하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성재곤 동명불원 신도회장은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길 기원하고 이렇게 함께 봉사해주는 모든 신행단체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서외숙 동명불원 신행단체 심우회 회장과 이갑숙 총무는 "동명불원에서 모든 불자의 마음을 모아 잘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봉사를 통해 행복해지는 건 바로 우리다. 즐거워해주시는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과학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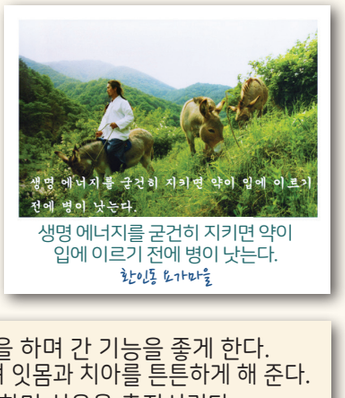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일행삼매 연구소(소장:처명)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의원 속담말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